

실제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좋은 일을 하려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비 군들도 나타나고 한다. 최근 미국언론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평화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리저리한 말들을 퍼뜨리고있다. 공화국이 비핵화협상의 막뒤에서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핵무기와 핵시설들을 은폐하고있다는 여론을 내뿜고있는것이 그것이다.

얼마전 미국의 NBC방송,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외교안보전문잡지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은 미정보기관들의 보고서와 위성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여러 비밀장소에서 핵무기개발을 위한 고농축우라늄생산시설을 확대하고있다. 냉핵시설의 2배규모인 비밀핵연료생산시설이 존재하며 비밀핵무기시설도 최소 1개 이상 보유하고있다고 떠

들어대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함흥에 위치한 미사일공장을 확장하고 《북극성-2》형 이동발사대차를 비롯한 관련장비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광고해대고있다.

이것이 공화국의 선의와 야망, 평화에호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조미관계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보내고있는 고적인 도발행위라는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은 세계가 역사적인 판문점수뇌회담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통하여 마련된 조선반도평화분위기에 지지도 관심을 보내고있는 때에 미국언론들이 조미관계개선에 인위적인 난관을 복잡성을 조성하는것은 매우 그릇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

하고 날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허위보도들을 마구 내뿜는 미국언론들의 행태가 조미협상을 파란내기 위한 미국내 강경보수세력들의 입김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외파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는 정보기관들과 언론들이 조미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의 총실한 대변자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단편적으로 지난 6월 29일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이고있다》고 한 NBC보도기사의 작성자는 2014년 미국의 기밀정보를 주로 다루던 온라인매체 《더 인터셉트》에서 CIA출신으로 밝혀져 쫓겨난 사람으로서 지난시기부터 조미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자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미국의 월가에서는 조미 긴장완화로 배제될 미중양

정보국내 일부 과별이 미국의 군수업체들과 함께 《북비핵화의혹설》로 위기를 다시 조성하고있다는 실이 들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미 행정부가 이것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랑설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공화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써먹으려는 행태를 보이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 있는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신고》와 《검중》과 같은 일반적이며 무례한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과 같은 중대하고도 절실한 사안은 멀리 미루어 놓으려고 한다는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난 세기 90년대말 있지도 않는 《금강리화핵시설의혹설》을 들고나와 조미협상과정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 세계앞에 망신당한 전례가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내뿜는 《북비핵화의혹설》은 과거의 쓰디쓴 전철을 밟는 우매하고 유치한 놀음으로서 삼척 동자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호상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반평화세력들, 대외반대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공화국과 상대대려 든다면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것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의 정신과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하려는 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적극적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이 진실로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분위기조성에 관심과 의욕이 있다면 호상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기초하여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실제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남조선에서 6월에 있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꺼져가는 운명을 견져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 당이 《쇄신》과 《변화》의 간판말에 벌려놓고있는 가소로운 추태들은 여론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던 당사를 영등포구로 옮기고는 《기득권》과 잘못된 인식을 모두 여의도에 버렸다. 《(국인)들이 부를 때까지 쇠신과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라며 무슨 일이나 철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절망 삶은 소웃다 꾸레미 티질삶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상인 《한나라당》은 16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2004년에 있는 《차떼기불법대선자금사건》과 《로부턴관택》역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17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중소기업전시관의 빈터에 《천막당사》를 꾸린 후 민심을 실망시킨것에 대해 《사죄》하고 새롭게 출발하

유지해보려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만적인 놀음이 민심에 통하겠는가. 그들이 《기득권》과 잘못된 인식을 모두 여의도에 버렸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말과 정 반대이다. 《국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보겠다고 퍼루성이 싸움질을 하

려자를 감추어보겠다는짓보다 어리석은 놀음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리명박, 박근혜의 그림자를 지어 버리고 마치고 《변화》와 《혁신》을 활것처럼 떠들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반역부리의 궁여지책으로서 이기력사의 시궁창에 빠진 가련한 운명을 견질수 없다.

거론하는 놀음도 벌려냈다. 바쁘면 고양이 발도 밟린다고 닥치는대로 인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당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치와는 인연이 없는 한 의과학과 교수에게까지 추파를 던졌다가 먼전까지 거결당하는 바람에 망신을 깨게 당한 《자유한국당》이다. 장의사를 청하여 장례를 치르고 처량한 장송곡속에 력사의 무덤에 영영 처박힐 신세에 그대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질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눈 뜨고 차마 보지 못할 희비극이다.

호박에 줄이나 굶는다고 하여 수박이 될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썩을대로 썩어 구린내만 풍기는 호박과 같은 몸통에 《쇄신》과 《변화》, 《혁신》이라는 색감이나 바른다고 하여 청신한 수박의 냄새를 풍길리 만무하다. 《자유한국당》은 온갖 악취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썩은 호박처럼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혀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용철

썩은 호박은 땅속에 묻힌다

《의지》를 보여주어 위기를 모면한바 있다. 노루 한쌍이 콩동이 석삼년 우려먹는다고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조상들의 봄을 따 여의도를 떠나 당사를 옮기는것으로 리명박, 박근혜역도들의 당이었다는 부정적인인식을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파국에 처한 당을 어떻게 하나

고 또 당내부에서는 자과세력확장을 위해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계파간의 싸움질은 《자유한국당》이 여의도에 버렸다는 《기득권》과 《혁신》의 팔불결에서 그들이야말로 역도들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못사는 한몸종이라는것을 그대로 실감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과 《변화》의 허울밑에 벌려놓은 정치민화가 또 있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면 외부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명》하다는 인물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후보로

민심은 최근 재판과정을 통하여 나날이 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특대형부정부패행위와 그를 비호추둔다는 《자유한국당》의 팔불결에서 그들이야말로 역도들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못사는 한몸종이라는것을 그대로 실감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과 《변화》의 허울밑에 벌려놓은 정치민화가 또 있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면 외부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명》하다는 인물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유네스코결정문이 보여주는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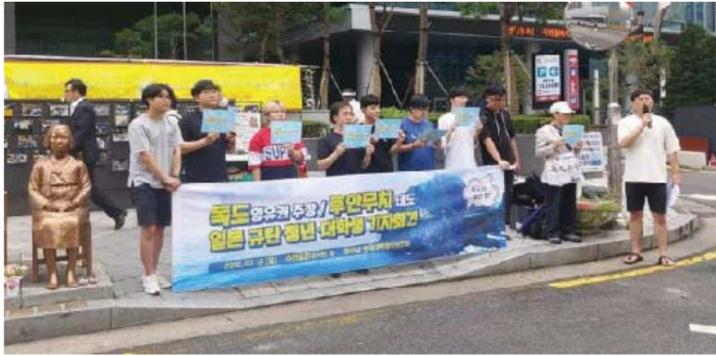
일본의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져있는 곳에 하시마라는 섬이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도 군함과 같이 《군함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섬은 지난 시기 전체가 탄광으로 되어있었다. 그 크기가 축구장 2개 합친것만 한 이 섬에는 지금도 해저탄광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다. 바로 여기에서 지난날 일제에 의해 수백명의 조선사람들, 지어는 소년들까지 강제로 끌려와 마소처럼, 노예와 같이 일하다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군함도》는 일제의 과거죄행을 증명하는 현장으로 되어왔다.

그런데 현 일본당국은 《군함도》에서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묻어버리기 위해 섬을 관광지로 꾸려놓았고 2015년 7월에 아시아나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였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당시 일본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고 통과 불행을 당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해당시설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전체 력사를 알리겠다고 국제기구

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일본이 한 행동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2017년도 다 저물어가는 11월 일본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리행경과보고서》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버렸다. 해당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의 력사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군함도》가 위치한 나가사키가 아니라 도요에 연구소형태로 설치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강제노동》이란 표현도 삭제해버린것이 바로 그것이였다. 나아가서는 일본은 《군함도》에 새로 설치한 안내판에서 《강제징용》이란 표현도 뽑아치우는 파렴치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속이 가마일곱보다 더 시꺼먼 일본만이 저지룰수 있는 추태를 두고 국제사회계와 많은 나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그야말로 력사에 대한 공정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가 분당금을 리유로 정치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한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황금철



주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그런 속에서 얼마전 바레인에서 진행된 유네스코회의에서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 산업시설에서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노동의 력사를 제대로 알릴것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전체 참가국들의 동의로 채택하였다.

과거죄악을 회피하기 위해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던 일본에게 세계가 경종을 울린것이다. 지구상에는 지난 시기 일본과 같이 인류에게 해악을 저지른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일본처럼 철면피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지난 시기의 잘못에 대해 해당 나라들에 성근히 반성하고 사죄, 배상하고있으며 그러한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오직 일본만이 과거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부정하고 회피하고있으며 미화분식하고있다. 지어는 일제의 범죄를 고발하는 심판장으로 력사에 남아있어야 할 장소마저 《군대화의 상징》이라는 외피를 씌워 본질에 리용하고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일본당국의 속물적 근성에 세계인류는 침을 뱉고있다.

황금철

뻔뻔스러운 리명박역도의 범죄 부정 망동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리명박역도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삼성그룹과 련관된 자기의 부정부패행위를 전면부정하며 철면피하게 높아졌다. 이자는 삼성에서 퇴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벼락맞을 일》이라고 아무재기를 쳤다 한다. 지어 자기를 삼성그룹과 련결시켜보려는것은 《오해》라며 아닌보살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처남과 형

본사기자

최근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핵관련시설들에 대한 《강제사찰》을 떠들며 더욱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당국은 《북조선이 핵, 미사일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적이고 예고없는 핵사찰이 필요하다.》, 《엄격한 조건을 달지 않으면 북조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타협하면 비밀시설이 남게 될것》이라는 나발을 연일 불어대고있다. 《마이니저신보》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언론들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조선의 행위를 막으려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아베정부가 공화국의 《핵관련의혹시설》에 대한 《강제사찰》제도도입을 위해 미국측과 사전조정에 들어갔

을 내세워 내은 다스희사의 돈을 자기것처럼 썼으며 회사의 소송비를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것은 다스희사운영자들과 역도의 측근들, 퇴물을 준 삼성그룹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역지를 부린다고 하여 진실이 덮여지지 않는다. 역도의 뻔뻔스러운 추태를 보며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다는 여론을 내뿜고있다. 그야말로 어리석고 주제넘은 짓거리이다. 조선반도문제는 일본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이 떠드는 그 무슨 《강제사찰》이란 지난 세기 90년대에 어리석은 적대세력들이 내뿜었다가 쓰디쓴 실패를 맞은 날강도적인 수법으로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존엄높은 공화국에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오히려 《강제사찰》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심각한 핵문제를 안고있는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는 일본이다. 공개된데 의하면 현재 일본은 47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6 000개의 핵탄두를

만들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일본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핵물질을 계속 저축하고 있다. 일본은 임의의 순간에 술한 핵무기를 제작, 보유할수 있는 모든 물질기술적조대도 마련해놓았다. 일본의 군사비도 해마다 늘어나 올해에는 5조 1 911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그 누구에 대한 《강제사찰》을 운운하는것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완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미대화를 깨버림으로써 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여기에는 또한 《신고》와 《검중》을 운운하는 상

세의 흐름이 더욱 확고해지고있다. 국제사회가 공화국의 통이 크고 파급한 대외정책적결단과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으며 조선반도문제에 리해관계가 있는 관련국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역정세발전전에 합류하기 위하여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대

전의 비위를 맞추며 조선반도정세흐름에서 밀려난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고 저들의 《존재감》을 과시해보려는 정치난쟁이의 날팍한 타산이 깔려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안정과 완화를 지향하는 대

세의 흐름이 더욱 확고해지고있다. 국제사회가 공화국의 통이 크고 파급한 대외정책적결단과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으며 조선반도문제에 리해관계가 있는 관련국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역정세발전전에 합류하기 위하여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대

세의 흐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본전도 못 찾은 대결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군국화와 해외침략이라는 일본의 헛된 망상이 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이 공화국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구축함에 설치할 다음세대 레이더를 미국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가 하면 미국주도의 환태평양항동군사훈련에 참가하고 매년 방위비를 사상 최고수준으로 증가하려는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일본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괜히 참새골을 굴리며 쫓겨 호르는 지역정세를 해치고 쫓잡스럽게 놀아대가는 시대밖으로 더욱더 밀려나는 비참한 결과밖에 차레질것이다. 김일수

일본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괜히 참새골을 굴리며 쫓겨 호르는 지역정세를 해치고 쫓잡스럽게 놀아대가는 시대밖으로 더욱더 밀려나는 비참한 결과밖에 차레질것이다. 김일수

김일수